

KT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안현민 데뷔 첫 만루 홈런 폭발...KT, 두산에 위닝시리즈 프로야구 KT 위즈가 '깜짝 스타' 안현민의 데뷔 첫 만루 홈런에 힘입어 위닝시리즈를 가져갔다. KT는 2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치러진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를 12-2 대승으로 장식했다. 안현민이 시즌 8호 홈런을 만루포로 장식하며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선발투수 오원석은 6이닝 1실점 호투로 시즌 7승째를 거두며 개인 4연승을 달렸다. 2승1패 위닝시리즈를 만든 KT는 28승25패3무(승률 .528)로 4위 자리를 지켰다. 루징시리즈를 당한 9위 두산은 22승30패3무(승률 .423). KT가 3회말 선취점을 올렸다. 권동진의 기습 번트에 두산 투수 콜어빈이 포구 실책을 범하며 주자가 나갔다. 배정대의 볼넷으로 이어진 2사 1,2루에서 멜 로하스 주니어의 1타점 중전 적시타로 기선 제압했다. 4회말에도 KT가 2점을 추가했다. 허경민과 김상수의 연속 볼넷, 권동진의 희생번트로 이어진 1사 2,3루에서 대타 장진혁이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3-0으로 달아났다. 두산도 5회초 강승호의 우전 안타와 2루 도루, 임종성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따라붙었지만 KT가 5회말 7득점 빅이닝으로 추격 의지를 꺾었다. 로하스의 좌전 안타, 장성우의 우전 안타로 만든 무사 1,3루에서 문상철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낸 KT는 허경민의 몸에 맞는 볼, 권동진의 볼넷으로 2사 만루 기회를 만들며 두산 선발 콜어빈을 강판시켰다. 두산은 베테랑 고효준을 마운드에 올렸지만 KT의 기세를 잠재우지 못했다. KT는 장진혁의 밀어내기 볼넷, 고효준의 폭투로 2점을 더했다. 배정대의 볼넷으로 계속된 2사 만루에선 안현민의 그랜드슬램이 터졌다. 고효준의 4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장외로 넘어가는 만루포를 폭발했다. 비거리 125m, 시즌 8호 홈런. 지난 17일 잠실 LG전 더블헤더 1차전 이후 11경기 만에 홈런 손맛을 봤다. 7회말에도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린 안현민이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폭발한 가운데 로하스가 5타수 4안타 1타점, 장진혁이 3타수 1안타 3타점 1볼넷, 배정대가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고르게 활약했다. 화끈한 타선 지원 속에 KT 선발 오원석이 선발승을 따냈다. 6이닝 7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하며 시즌 7승(2패)째를 거둔 오원석은 지난 3일 수원 키움전부터 개인 4연승도 이어갔다. 평균자책점도 2.62에서 2.51로 낮추며 트레이드 성공작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반면 두산 선발 콜어빈은 제구 난조 속에 4⅓이닝 7피안타 5볼넷 1사구 2탈삼진 7실점(6자책)으로 무너지며 시즌 5패(5승)째를 당했다. 김재환과 강승호가 2안타씩 쳤지만 팀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영표 7⅓이닝 1실점 승리...KT, 두산 꺾고 4연승 질주 마법사 군단이 '107억 에이스' 고영표의 명품투를 앞세워 4연승에 성공했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27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7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KT는 3연전 기선제압과 함께 4연승을 질주하며 시즌 27승 3무 24패를 기록했다. KBO리그 역대 11번째 팀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 반면 KT전 4연패에 빠진 두산은 21승 3무 29패가 됐다. 홈팀 KT는 두산 선발 최승용을 맞아 황재균(1루수) 김민혁(좌익수) 안현민

(중견수) 멜 로하스 주니어(우익수) 강백호(지명타자) 장성우(포수) 허경민(3루수) 김상수(2루수) 권동진(유격수) 순의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이에 두산은 KT 선발 고영표 상대 정수빈(중견수) 제이크 케이브(우익수) 양의지(포수) 김재환(지명타자) 양석환(1루수) 오명진(유격수) 추재현(좌익수) 강승호(2루수) 임종성(3루수) 순으로 맞섰다. KT는 5회까지 득점권 빈타에 시달렸다. 2회말 장성우, 김상수가 안타로 2사 1, 2루 밥상을 차렸지만, 권동진이 1루수 땅볼에 그쳤고, 4회말 선두타자 강백호가 중전안타, 장성우가 2루타로 만든 무사 2, 3루 기회는 허경민이 짧은 우익수 뜬공, 김상수가 2루수 직선타, 권동진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무산됐다. 3루주자 강백호는 김상수의 안타성 타구가 2루수 강승호의 호수비에 막힌 걸 보고 귀루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KT가 6회말 마침내 혈을 뚫었다. 선두타자 문상철이 9구 끝 볼넷, 허경민이 우전안타로 1사 1, 2루에 위치했다. 이어 김상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금지막한 1타점 2루타로 0의 균형을 깬고, 권동진이 상대 허를 찌르는 스쿼즈번트로 달아나는 타점을 올렸다. 두산 타선은 고영표 상대 7회초 2사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1루를 밟지 못했다. 6회까지 6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7회초 2사 후 양의지가 고영표의 초구에 좌전안타로 고영표의 퍼펙트 행진을 깬 뒤 김재환이 사구를 얻어 2사 1, 2루 찬스를 만들었지만, 양석환이 헛스윙 삼진으로 이닝을 끝냈다. 두산이 8회초 다시 힘을 냈다. 2사 후 강승호가 좌중간으로 향하는 2루타, 대타 김인태가 사구로 1, 2루에 위치한 뒤 정수빈이 추격의 1타점 중전 적시타를 치며 고영표를 강판시켰다. 이어 케이브가 KT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했으나 2루수 땅볼로 아쉬움을 삼켰다. KT 선발 고영표는 7⅓이닝 3피안타 2사구 9탈삼진 1실점 92구 역투로 시즌 4승(4패)째를 챙겼다. 이어 세이브 단독 선두 박영현이 1⅓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18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타선에서는 장성우, 김상수가 나란히 멀티히트 경기를 치르며 하위타선의 반란을 일으켰다. 반면 두산 선발 최승용은 6이닝 8피안타 2볼넷 2탈삼진 2실점 95구 호투에도 타선 침묵에 시즌 2패(3승)째를 당했다. 두산 타선은 KT 마운드에 3안타-1득점으로空空 뒀다.

'황재균 고척 지배' KT, 키움전 스윙...키움 7연패 수렁 "황재균은 알고 보면 레전드급 선수다." KT 이강철 감독이 극찬한 베테랑 내야수 황재균이 고척 3연전에서 엄청난 타격을 펼치며 팀을 시리즈 스윙으로 이끌었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2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9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KT는 주말 시리즈를 싹쓸이하며 시즌 26승 2무 24패를 기록했다. 반면 7연패 수렁에 빠진 키움은 14승 41패가 됐다. KT가 3회초 선취점이자 결승점을 뽑았다. 1사 후 김상수가 9구 승부 끝 볼넷, 권동진이 7구 승부 끝 볼넷을 연달아 골라낸 뒤 황재균이 0의 균형을 깨는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렸다. 결승타를 때려낸 순간이었다. 5회초 기회는 살리지 못했다. 선두타자 장성우가 좌전안타 출루 이후 2루 도루에 실패한 상황. 이를 딛고 김상수, 황재균이 볼넷을 골라냈지만, 김민혁이 유격수 땅볼로 이닝을 끝냈다. 6회초는 달랐다. 1사 후 멜 로하스 주니어가 좌중간으로 향하는 2루타, 강백호가 볼넷 출루한 뒤

상대 폭투로 한 베이스씩을 이동했다. 여기에 투수 박윤성이 보크를 범하며 로하스가 달아나는 썬기 득점을 올렸다. 키움은 0-2로 뒤진 7회말 찬스 무산이 뼈아팠다. 이주형이 좌전안타, 김건희가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2사 1, 2루 밥상을 차렸으나 어준서가 루킹 삼진을 당했다. 9회말 임지열이 볼넷, 김건희가 안타로 만든 2사 1, 3루 기회 또한 어준서가 좌익수 뜬공에 그치며 무산됐다. 경기 종료. KT 선발 소형준은 7이닝 6피안타 무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 91구 호투로 시즌 4승(2패)째를 챙겼다. 이어 원상현(1이닝 무실점)-박영현(1이닝 무실점)이 뒤를 지켰고, 박영현은 시즌 17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타선에서는 황재균이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장성우가 3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황재균은 키움 시리즈에서 타율 6할9푼2리(13타수 9안타)를 때려내며 시리즈 스윙 주역으로 우뚝 섰다. 반면 키움 선발 김선기는 4⅓이닝 2피안타 3사사구 1탈삼진 1실점 투구로 시즌 5패(무승)째를 당했다. 루벤 카디네스의 3안타는 패배에 빛이 바랬다. KT는 하루 휴식 후 27일부터 홈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키움은 광주로 이동해 KIA 타이거즈를 만난다.

SSG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고명준 4안타+박시후 데뷔 첫 승' SSG, NC 6-5 진땀승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불펜 싸움에서 승리하며 2연승에 성공했다. SSG는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5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다. 선발투수 김건우는 2⅓이닝 3피안타 1볼넷 1사구 4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고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다. 하지만 박기호(1⅓이닝 1실점 비자책)-박시후(2⅓이닝 2실점)-노경은(1⅓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역투하며 팀 승리를 지켰다. 조병현은 시즌 8세이브를 따냈다. 박시후는 데뷔 첫 승리투수가 됐다. SSG는 최지훈(중견수)-안상현(3루수)-최정(지명타자)-고명준(1루수)-한유섬(우익수)-이지영(포수)-박성한(유격수)-채현우(좌익수)-김찬형(2루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SSG 타선은 8안타를 기록했고 이 중 절반인 4안타를 고명준 홀로 때려냈다. 고명준은 4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 맹활약. 이지영도 4타수 2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최정은 1볼넷 1사구를 기록했다. 몸에 맞는 공 이후 오타곤과 교체돼 우려를 자아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 NC는 최정원(2루수)-김주원(유격수)-권희동(좌익수)-맷 데이비스(지명타자)-박건우(우익수)-천재환(중견수)-송승환(1루수)-안중열(포수)-김휘집(3루수)이 선발 출장했다. 데이비스는 시즌 8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정원도 멀티히트와 도루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선발투수 로건 앨런은 4⅓이닝 7피안타 3볼넷 1사구 1탈삼진 6실점(5자책) 패전을 기록했다. 손주환(1⅓이닝 무실점)-김진호(1이닝 무실점)-임정호(1이닝 무실점)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역투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NC는 1회초 선두타자 최정원이 2루타와 3루 도루로 무사 3루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주원이 삼진을 당했고 권희동은 볼넷을 골라냈다. 데이비스의 삼진 이후에는 박건우가 유격수 땅볼로 잡히면서 득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SSG는 1회말 1사에서 안상

현의 안타와 최정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찬스를 잡았고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서 한유섬의 1타점 적시타와 이지영의 1타점 진루타로 3-0까지 달아났다. 박성한은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NC는 2회초 선두타자 천재환이 번트안타로 출루했다. 송승환은 삼진을 당했지만 천재환은 2루 도루로 1사 2루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안중열과 김휘집이 모두 범타로 물러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3회에는 선두타자 최정원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김주원이 안타를 때려냈다. 권희동은 삼진을 당했지만 김주원이 도루로 2루에 진루해 1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고 데이비슨이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1점차로 추격했다. 박건우와 천재환은 모두 삼진을 당했다. SSG는 3회말 1사에서 최정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고 고명준이 안타를 때려냈다. 한유섬의 진루타로 이어진 2사 2, 3루에서는 이지영이 1타점 내야안타를 만들어내며 한 점 달아나는 점수를 냈다. NC는 4회초 2사에서 김휘집이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1루에 살아나갔고 최정원이 안타로 2사 1, 3루 찬스를 만들었다. 최정원은 도루 시도를 하다가 런다운에 걸려 아웃됐지만 그 사이 3루주자 김휘집이 홈으로 들어와 3-4로 추격했다. 5회 2사에서는 데이비슨이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SSG는 5회말 1사에서 대타 오태곤이 볼넷을 골라냈고 고명준은 안타를 쳤다. 한유섬의 진루타로 이어진 2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도루를 시도했고 그 사이 3루주자 오태곤도 홈으로 쇄도했다. 여기서 유격수 송구 실책이 나왔고 한유섬은 3루까지 진루하는데 성공했다. 이지영은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박성한은 3루수 뜬공으로 잡혔다. NC는 7회초 선두타자 김휘집이 추격의 솔로홈런을 쏘아올렸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는 선두타자 박민우가 안타를 때려냈고 박세혁은 2루수 땅볼을 쳐 선행주자가 잡혔다. 김휘집도 유격수 땅볼을 쳐 선행주자가 잡혔지만 가까스로 병살타는 피했다. 한석원은 1루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SSG 홈런공장 풀가동, 한유섬 200호...NC에 13-5 대승 SSG 랜더스가 공동 6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유섬은 개인 통산 200홈런 대기록을 달성했다. SSG는 2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3-5로 대승을 거뒀다. 전날(27일) 11회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은 이날 완벽하게 승패가 가려졌다. SSG는 26승 25패 2무를 마크했다. SSG가 근소한 차이로 5위로 올라섰다. NC는 23승 24패 3무에 머물렀다. NC는 목지훈이 선발 등판했다. 권희동(좌익수) 김주원(유격수) 박민우(2루수) 데이비슨(지명타자) 박건우(우익수) 천재환(중견수) 김휘집(1루수) 박세혁(포수) 김한별(3루수)이 선발 출장했다. SSG는 김광현이 선발 마운드에 올랐다. 최지훈(중견수) 최준우(좌익수) 최정(지명타자) 한유섬(우익수) 고명준(1루수) 박성한(유격수) 신범수(포수) 정준재(2루수) 안상현(3루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경기 초반부터 SSG의 홈런 공장이 가동되며 주도권을 잡았다. SSG는 1회 선두타자 최지훈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최준우가 우월 투런포를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았다. 2회에는 선두타자 신범수가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정준재가 포수 땅볼로 1루 선행주자가 잡혔지만 안상현의 볼넷, 최지훈의 우익수 뜬공, 최준우의 볼넷으로 2사 만루 기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최정이 좌

익수 방면, 주자들을 모두 불러들이는 싹쓸이 2루타를 뽑아냈다. 2타점에 1루 주자 최준우는 NC의 중계 릴레이 과정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진 2사 3루 기회에서는 한유섭의 우전 적시타로 2회에만 4점을 더했다. 6-0으로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NC는 3회초 격차를 다시 2점 차이로 좁혔다. 선두타자 안중열이 볼넷으로 걸어나갔지만 김한별의 유격수 병살타로 2아웃이 됐다. 하지만 2사 후 권희동의 볼넷, 김주원의 중전 안타로 2사 1,3루 기회를 만들었고 박민우의 우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계속된 2사 1,2루에서 데이비스의 중전 적시타로 1점, 그리고 박건우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4-6까지 따라 붙었다. 5회말부터 SSG가 다시 격차를 벌렸다. 선두타자 고명준이 중월 솔로포를 터뜨렸다. 박성한, 신범수의 연속 볼넷으로 기회를 이어갔다. 정준재가 삼진을 당했지만 안상현의 볼넷으로 1사 만루 기회를 이어갔다. 최지훈이 2루수 인필드플라이로 물러나 2사 만루가 됐지만 상대 포일로 1점을 겨우 뽑아내면서 8-4가 됐다. NC는 6회초 1사 만루에서 안중열의 2루수 땅볼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SSG가 6회말부터 다시 달아났다. 최정과 한유섭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10-5가 됐다. 최정과 한유섭이 함께 만들어낸 통산 8번째 백투백 홈런. 아울러 한유섭은 이 홈런으로 통산 200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7회 SSG는 정준재의 볼넷, 안상현의 우전안타로 만든 무사 1,2루 기회에서 최지훈이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3루타를 뽑아냈다. 이후 최준우의 타구가 3루수 실책으로 이어지며 3루 주자 최지훈까지 홈을 밟았다. SSG는 홈런 4개 포함 장단 13안타를 때려냈다. 최준우가 3타수 1홈런 2타점, 최정은 5타수 3안타(1홈런) 3타점, 한유섭은 5타수 2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김광현은 5이닝 5피안타 3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NC는 선발 목지훈이 2⅓이닝 6피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한재승 김태훈 전사민이 등판했지만 SSG의 화력을 막아내지 못했다.

NC-SSG, 연장 11회 '1-1 무승부' 나란히 공동 6위로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외국인 투수 드류 앤더슨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해 연장 11회 무승부에 만족했다. SSG는 27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를 1-1 무승부로 마쳤다. 선발투수 드류 앤더슨이 7이닝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볼펜이 8회 동점을 허용했고, 연장 11회까지 갔지만 점수를 내지 못했다. SSG는 25승25패2무, NC는 23승23패3무로 나란히 5할 승률로 공동 5위에서 공동 6위로 같이 내려왔다. 대구 롯데전을 7-3으로 승리한 삼성이 27승26패1무로 단독 5위가 됐다. SSG가 2회말 NC 선발투수 신민혁에게 선취점을 냈다. 선두타자 한유섭이 8구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연 뒤 고명준이 좌전 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잡았다. 이어 최준우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먼저 올렸다. 하지만 정준재의 중전 안타로 2사 1,2루 찬스에서 조형우가 초구에 유격수 땅볼을 치면서 이닝이 끝난 뒤 추가점이 나지 않았다. 신민혁이 3~6회 4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SSG 타선을 압도했다. 신민혁은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4탈삼진 1실점 퀄리티 스타트. SSG는 선발 앤더슨이 7이

닝 5피안타 무사사구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1-0 리드를 이어갔지만 불펜이 가동되지마자 무실점 행진이 깨졌다. 8회초 필승조 노경은이 올라왔지만 NC가 반격에 나섰다. 도태훈의 볼넷, 박민우의 중전 안타로 무사 1,3루 기회를 잡은 NC는 박민우가 2루 도루에 실패했지만 김주원이 중전 적시타를 치면서 1-1 동점을 만들었다. 앤더슨의 시즌 5승이 날아간 순간. 하지만 SSG는 2사 1루에서 나온 이로운이 박건우에게 볼넷을 내주며 이어진 1,2루에서 권희동을 2루 내야 뜬공 잡고 역전을 막았다. 9회초까지 1⅓이닝 1탈삼진 무실점. 이어 연장 10회초에는 마무리 조병현이 탈삼진 2개 포함 삼자범퇴로 막았고, 11회초에도 김민이 공 7개로 삼자범퇴하며 패배를 막았다. 11회말 SSG가 마지막 공격에서 끝내기 기회를 잡았다. NC 구원 손주환을 상대로 선두타자 최지훈이 우전 안타로 끝내기 주자가 됐다. 이어 박성환이 좌중간으로 장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NC 중견수 천재환의 다이빙 캐치에 걸렸다. 이어 최정이 우측 펜스 앞으로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지만 워닝 트랙에서 잡혔다. 계속된 2사 1루에서 NC는 전사민으로 투수를 바꿨고, 한유섭을 초구에 중견수 뜬공 처리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다.

롯데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손호영 5안타 폭발' 롯데, 한화 꺾고 하루 만에 2위 탈환 팀 타율 1위에 빛나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창이 평균자책점 1위 한화 이글스의 방패를 뚫었다. 손호영이 연장 10회 결승타 포함 데뷔 첫 5안타 경기를 펼치며 롯데의 재역전승을 이끌었다. 롯데는 24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7-6으로 이겼다. 6회까지 3-6으로 뒤졌지만 7회 3점을 내며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0회 손호영의 결승타가 터지며 한화 마운드를 무너뜨렸다. 마무리 김원중이 9회부터 10회까지 2이닝을 실점 없이 막고 구원승을 올렸다. 전날(23일) 한화에 당한 2-4 역전패를 설욕한 롯데는 시즌 30승20패3무(승률 .600)를 마크, 한화(30승21패 승률 .588)를 다시 3위로 밀어내며 하루 만에 단독 2위를 탈환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롯데였다. 류현진을 상대로 2회초 전준우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윤동희가 우전 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잡았다. 둘 다 류현진의 바깥쪽 공을 공략하며 주자를 모았다. 이어 나승엽이 초구를 건드려 유격수 병살로 물러났지만 3루 주자 전준우가 홈인하며 롯데가 기선 제압했다. 3회초 롯데가 2점을 달아났다. 유강남의 볼넷, 손호영의 좌전 안타로 만든 1사 1,2루에서 고승민이 류현진의 바깥쪽 높은 커터를 중전 적시타로 연결했다. 계속된 1사 1,2루에서 빅터 레이예스도 류현진의 커터를 받아쳐 3루 쪽으로 강습 타구를 날렸다. 한화 3루수 노시환이 잡기 까다로운 타구가 좌익수 앞으로 빠지면서 롯데가 1점을 추가했다. 3-0 리드. 하지만 한화가 3회말 롯데 선발 터커 데이비스를 공략하며 곧바로 균형을 맞췄다. 최재훈의 볼넷, 이도윤의 중전 안타로 만든 무사 1,2루. 플로리얼이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하주석이 우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여기서 롯데 우익수 윤동희의 홈 송구가 3루 덕아웃으로 빠진 사이 2루 주자 이도윤도 투베이스 안전진루권으로 홈을 밟았다. 하주석도 3루 진루하며 이어진 찬스에서 문현빈이 우전 적시타

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3-3 동점이 됐다. 5회말 한화가 홈런 두 방으로 승기를 잡았다. 선두타자로 나온 플로리얼이 우중월 솔로 홈런을 폭발했다. 데이비스의 2구째 가운데 높은 시속 143km 직구를 잡아당겼다. 비거리 125m, 플로리얼의 시즌 5호 홈런으로 한화가 이날 경기 첫 리드를 잡았다. 계속된 5회말 공격에서 한화는 2사 후 노시환이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다음 채은성의 좌월 투런포가 터졌다. 5구째 바깥쪽 높게 들어온 시속 146km 직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115m, 시즌 5호 홈런.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채은성은 이번 주에만 5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쳤다. 롯데 선발 데이비스는 5이닝 8피안타(2피홈런) 1볼넷 1사구 6탈삼진 6실점(4자책)으로 올 시즌 개인 최다 실점. 류현진이 5이닝 7피안타 1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막고 내려갔지만 7회초 한화 불펜이 3실점하며 선발승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 7회초 필승조 박상원이 선두타자 유강남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뒤 손호영에게 좌월 2루타를 맞으며 무사 2,3루 위기에서 강판됐다. 좌완 김범수가 올라왔지만 장두성에게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중견수 플로리얼이 공을 빠뜨리는 포구 실책을 범해 장두성이 2루까지 한 베이스 더 갔다. 고승민의 1루 강습 내야 안타로 이어진 무사 1,3루에서 김범수는 레이예스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한숨 돌렸다. 이어 한화 필승조 한승혁이 투입됐지만 롯데가 기여 이 동점을 만들어냈다. 전준우의 배트 끝에 빗맞은 타구가 1루 파울라인 근처로 데굴데굴 굴러갔고, 한승혁이 1루로 어렵게 송구하며 아웃 처리한 사이 3루 주자 장두성이 홈에 들어와 6-6 동점. 류현진의 승리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팽팽한 불펜 싸움은 9회 정규 이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화는 7회 투입된 한승혁이 8회까지 1⅔이닝 1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뒤 9회 마무리 김서현이 몸에 맞는 볼 1개를 내줬지만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6회부터 불펜을 가동한 롯데는 김상수(⅓이닝), 송재영(⅔이닝), 정현수(⅓이닝), 최준용(1이닝), 정철원(⅔이닝)이 나란히 무실점으로 막은 뒤 9회 마무리 김원중까지 실점 없이 막으며 승부가 연장으로 넘어갔다. 10회초 롯데가 결승점을 뽑아냈다. 한화 구원 김종수 상대로 선두타자 나승엽이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보크로 2루에 진루했다. 보내기 번트 동작을 취하던 전민재가 9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유강남의 희생 번트로 이어진 1사 2,3루. 손호영이 김종수의 4구째 몸쪽 높은 직구를 받아쳐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이날 경기 결승타. 5타수 5안타 2타점을 폭발한 손호영은 데뷔 첫 5안타 경기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다. 김원중이 10회말까지 2이닝을 실점 없이 막고 시즌 2승째를 올렸다. 10회말 1사 1루에서 한화 신인 대타 이민재를 2루수 병살타로 유도하며 경기를 끝냈다. 2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 투구수 35개로 투혼을 불살랐다. 롯데는 김원중 포함 불펜투수 6명이 5이닝 무실점을 합작하며 역전승 발판을 마련했다. 한화도 7명의 불펜투수를 썼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⅓이닝 2실점한 한화 김종수가 시즌 4패(1승)째. 한편 한화는 이날 오후 12시25분부로 1만 7000석 전 좌석이 매진됐다. 시즌 24번째 매진. 대전 홈 27경기 중 3경기를 빼고 만원 관중으로 꽉 들어차고 있다. 지난달 13일 키움전부터 최근 20경기 연속 매진으로 KBO

역대 연속 홈경기 매진 기록을 또 늘렸다. 종전 기록도 한화가 갖고 있는데 2023~2024년 2시즌에 걸쳐 17경기 연속 홈 매진을 이룬 바 있다.

'이민석 첫 승+전준우 4안타' 롯데, LG 11-4 대파하고 단독 2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LG 트윈스를 꺾고 단독 2위로 올라섰다. 롯데는 2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는와 시즌 5차전 맞대결에서 11-4로 승리했다. 롯데 선발 투수 이민석은 5이닝 6피안타 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2022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이민석은 데뷔 첫 선발승을 기록했다. 톱타자 장두성이 역전 결승타를 때리며 3타수 1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다. 4번타자 전준우는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윤동희가 4타수 2안타1타점 1득점, 전민재가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LG 선발투수 코엔 윈은 3⅓이닝 8피안타 2볼넷 2사구 7실점(6자책)을 허용했다. LG는 문성주(좌익수) 김현수(1루수) 오스틴(지명타자) 박동원(포수) 오지환(유격수) 구본혁(3루수) 송찬의(우익수) 박해민(중견수) 이영빈(2루수)이 선발 출장했다. 롯데는 이날 장두성(중견수) 고승민(2루수) 레이예스(좌익수) 전준우(지명타자) 나승엽(1루수) 윤동희(우익수) 전민재(유격수) 유강남(포수) 손호영(3루수)이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다. 롯데는 1회말 선취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장두성과 2번 고승민이 잇따라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레이예스의 2루수 땅볼로 1사 1,3루가 됐다. 전준우가 3루수 키를 원바운드로 넘어가는 좌전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나승엽의 1루수 땅볼 타구 때 1루수 포구 실책으로 1사 만루가 됐다. 윤동희가 유격수 인필드 플라이로 아웃됐으나, 전민재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 1타점을 올렸다. 롯데는 2-0으로 앞서 나갔다. LG는 3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이영빈이 우전 안타로 출루했고, 문성주가 중전 안타를 때려 무사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김현수가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 2루주자는 3루로 태그업 진루했다. 오스틴이 이민석의 슬라이더(141km)를 끌어당겨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쏘아 올렸다. 시즌 13호 홈런. 단숨에 3-2로 역전시켰다. 롯데는 3회말 재역전시켰다. 선두타자 전준우가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나승엽의 중견수 뜬공 아웃 때 1루주자가 2루로 태그업을 시도했는데, 중견수의 정확한 송구에 태그 아웃됐다. 2사 후 윤동희가 우전 안타, 전민재가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유강남이 허벅지를 스치는 사구로 2사 만루를 만들었다. 손호영이 왼쪽 팔뚝에 맞는 사구로 밀어내기 3-3 동점을 만들었다. 장두성이 2루 베이스 옆을 빠져나가는 중전 적시타를 때려 2타점을 올렸다. 롯데가 5-3으로 달아났다. 롯데는 4회 추가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레이예스가 중전 안타, 전준우가 우측 펜스를 맞는 2루타를 때려 무사 2,3루 찬스를 만들었다. 나승엽은 전진 수비를 한 유격수 정면 땅볼 아웃. LG는 선발 코엔 윈을 내리고 백승현을 2번째 투수로 올렸다. 윤동희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 1점을 추가했다. 이어 전민재의 3루수 땅볼 때, 3루수의 1루 송구에 재빨리 홈으로 달린 3루주자 전준우의 센스 있는 주루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했다. 7-3으로 달아났다. LG는 6회 선두타자 오지환이 이민석의 148km 직구를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6호. 4-7로 한 점 따라붙었다. 롯데는 선발 이민석을

내리고, 김상수를 구원 투수로 올렸다. 구본혁이 좌선상 2루타를 때려 출루했다. 1사 후 이주헌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이영빈 타석에서 2루주자 구본혁이 3루 도루를 성공했다. 그러나 이영빈이 삼진 아웃, 문성주는 바뀐 투수 정현수 상대로 좌익수 뜬공 아웃으로 득점 기회를 놓쳤다. 롯데는 7회 정현수가 김현수와 오스틴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신민재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으나, 오지환을 중견수 뜬공으로 실점없이 이닝을 마쳤다. 8회는 정철원이 올라와 공 6개로 삼자범퇴로 끝냈다. 구본혁을 우익수 뜬공, 송찬의를 중견수 뜬공, 이주헌을 2루수 땅볼로 이닝을 끝냈다. 롯데는 8회말 1사 후 전준우의 안타, 2사 1루에서 윤동희와 전민재의 연속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다. 이호준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10-4로 달아났다. 손호영이 1타점 좌전 적시타로 11-4를 만들었다.

이영빈 홈런 2방-고승민 동점 투런, LG-롯데 3시간56분 혈투 무승부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연장 11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LG와 롯데는 2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시즌 4차전 맞대결 경기에서 7-7 무승부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9회까지 7-7 동점으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10회초 롯데는 투수 최준용이 올라와 선두타자 문성주를 볼넷을 내보냈으나, 포수 유강남이 2루 도루를 저지하며 실점없이 막아냈다. 10회말 LG는 좌완 이우찬이 마운드에 올라 2사 후 볼넷을 내보냈으나 무실점을 기록했다. 11회초 최준용이 또 올라와 삼자범퇴로 LG의 승리 기회를 지웠다. 연장 11회말 LG는 성동현이 등판했다. 2사 후 나승엽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윤동희가 마지막 아웃을 당하며 무승부로 끝났다. 염경엽 LG 감독의 개인 통산 600승은 이뤄졌다. 현재 599승을 기록 중이다. LG 선발 임찬규는 4⅓이닝(86구) 11피안타 2볼넷 1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롯데 선발 나균안은 5이닝(102구) 8피안타 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4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두 투수 모두 노디시전. LG는 이날 문성주(좌익수) 김현수(1루수) 오스틴(지명타자) 문보경(3루수) 박동원(포수) 송찬의(우익수) 구본혁(유격수) 박해민(중견수) 이영빈(2루수)이 선발 출장한다. 염경엽 감독은 "오지환은 어제 사구 맞은 부분이 조금 안 좋아서 휴식이다. 상황이 되면 대타로 한 번 나간다"고 말했다. 롯데는 경기를 앞두고 장두성(중견수) 고승민(2루수) 레이예스(좌익수) 전준우(지명타자) 전민재(유격수) (1루수) 윤동희(우익수) 유강남(포수) 손호영(3루수)의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전날과 동일한 라인업. 그런데 오더 교환 직전에 포수를 바꿨다. 유강남을 빼고 8번 손호영, 9번 정보근으로 라인업을 바꿔 제출했다. 롯데 관계자는 "(유강남 선수는) 부상은 아니다. (감독님)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LG는 1회 선취점을 뽑았다. 1사 후 김현수가 우전 안타, 오스틴이 좌전 안타, 문보경이 볼넷을 골라 만루 찬스를 잡았다. 박동원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송찬의가 때린 타구는 빗맞아 3루 선상으로 굴렀다. 공을 잡은 3루수가 아무 데도 던지지 못해 1타점 내야 안타가 됐다. LG는 2회 추가점을 뽑았다. 1사 후 이영빈이 나균안의 129km 포크볼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호. 2사 후에는 김현수가 우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시즌 3호. LG가 3-1로 앞서 나갔다. 롯데는 2회말 선두타자 전준우가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로 출루했다. 전민재의 투수 땅볼 때 2루 주

자가 협살에 걸려 태그 아웃,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나승엽의 중전 안타로 1사 1,3루를 만들었다. 윤동희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2사 후 정보근의 좌선상 2루타로 3-2로 추격했다. 롯데는 4회 경기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나승엽이 우전 안타, 윤동희의 좌전 안타, 손호영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정보근이 유격수 땅볼 병살타로 2아웃, 3루주자는 득점을 올려 3-3 동점이 됐다. 2사 3루에서 장두성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 4-3으로 역전시켰다. LG는 5회 선두타자 문보경이 좌선상 2루타로 출루했다. 박동원이 기습 번트를 시도했는데, 투수 땅볼로 아웃되면서 1사 3루가 됐다. 송찬의는 삼진 아웃. 구본혁의 땅볼 타구를 1루수 나승엽이 포구 실책을 하면서 3루주자가 득점, 4-4 동점이 됐다. 롯데는 5회말 선두타자 레이예스가 3루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는데, 전준우가 3루수 땅볼 병살타로 2사 주자 없는 상황이 됐다. 전민재가 우선상 2루타로 출루했고, 나승엽이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윤동희가 중전 적시타를 때려 5-4로 리드를 잡았다. LG는 투수를 이지강으로 교체했다. 2사 1,3루에서 손호영이 삼진으로 물러나 공격이 끝났다. LG는 6회초 선두타자 이영빈이 바뀐 투수 좌완 정현수의 슬라이더(130km)를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한 경기 멀티 홈런. 5-5 동점을 만들었다. LG는 7회 선두타자 문보경이 우전 안타, 박동원이 볼넷을 골라 무사 1,2루가 됐다. 송찬의가 희생번트를 시도했는데, 1루쪽으로 타구를 굴렸다. 1루수가 대시해 잡아서 3루로 던져 아웃시켰다. 1사 1,2루에서 구본혁이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적시타를 때려 6-5로 재역전시켰다. 1루주자는 3루로 내달렸고, 3루 송구 때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박해민 타석에 오지환이 대타로 나왔다.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7-5로 앞서 나갔다. 롯데는 7회 2사 후에 전민재가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나승엽이 우익수 앞 안타를 때려 1,3루 찬스로 연결했다. LG는 이지강에 이어 필승조 김진성을 마운드에 올렸다. 앞서 3타수 3안타를 때린 윤동희는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진성은 8회 대타 정훈을 삼진으로 잡고, 대타 유강남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1사 1루에서 장두성을 포크볼 3개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고승민이 2볼-2스트라이크에서 포크볼(128km)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7-7 동점이 됐다. LG는 9회초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했다. 1사 후 송찬의가 중전 안타, 구본혁이 좌전 안타로 1,2루를 만들었다. 오지환이 유격수 앞 느린 땅볼로 아웃되면서 2사 2,3루가 됐다. 대타 함창건이 나와서 풀카운트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LG는 9회말 박명근을 구원투수로 올렸다. 선두타자 전준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대주자 김동혁으로 교체. 전민재가 희생번트를 성공시켜 1사 2루가 됐다. 나승엽은 자동 고의4구로 내보냈다. 윤동희의 잘 맞은 타구는 좌익수에 잡혔다. 김민성은 1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키움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정현우 데뷔전 122구 진땀승, 17점 맹폭, 키움 3연패 탈출..키움 히어로즈가 3연패에서 벗어났다. 키움은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KIA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7-10로 승리했다. 카디네

스의 빼기 3점포 포함 장단 21안타를 터트려 대승을 거두었다. 선발 고졸특급 정현우는 5이닝 6실점(4자책)하며 데뷔전 승리를 안았다. KIA가 먼저 공세를 펼쳤다. 1회말 1사후 위즈덤이 왼쪽 담장을 원바운드로 넘어가는 2루타로 출루했다. 폭투에 이어 나성범의 내야땅볼로 선제점을 뽑았다. 최형우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트리자 김선빈 볼넷과 이우성이 중전적시타를 날려 2-0으로 리드를 잡았다. 키움은 2회초 2사1,3루에서 행운을 얻었다. 오선진이 유격수 땅볼에 그쳤으나 무릎부상을 당한 박찬호 대신 KIA 유격수로 나선 윤도현이 펄쩍하는 틈을 타 한 점을 추격했다. 이어 푸이그, 이주형, 카디네스가 연속 안타를 터트려 4-2로 역전에 성공했다. KIA는 윤도현의 실책이 빅이닝을 초래했지만 윤영철이 집중타를 맞은 것도 뼈아팠다. KIA도 굴하지 않고 2회말 2사만루에서 최형우의 2타점 우전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자 키움도 3회초 무사 만루기회를 잡았다. KIA는 윤영철을 내리고 황동하를 투입했다. 김재현의 유격수 병살타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 오선진이 왼쪽 2루타를 터트려 6-4로 달아났다. KIA는 3회 공격에 아쉬웠다. 2사후 김태균 볼넷, 윤도현 2루타, 최원준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즈덤이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추격의 흐름이 끊겼다. 키움은 4회에서도 득점했다. 2사후 송성문 볼넷에 이어 최주환의 우익수 옆 2루타로 7-4 또 한 점을 달아났다. 키움이 5회초 승부를 결정냈다. 여동욱의 중전안타와 김재현의 사구로 기회를 만들었다. 오선진과 푸이그가 범타로 물러났으나 이주형이 1타점 2루타, 카디네스와 좌월 스피런포를 가동해 11-4로 점수차를 확 벌렸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었다. KIA 윤영철(2이닝 6피안타 3볼넷 6실점 2자책)에 이어 황동하도 볼이 가운데로 몰리며 5실점을 했다. KIA는 5회에는 변우혁 안타, 윤도현 2루타, 위즈덤 볼넷으로 만든 2사 만루에서 나성범의 우전적시타로 두 점을 추격했다. 정현우는 5회를 마치고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성적은 5이닝 8피안타 7볼넷 4탈삼진 6실점(4자책)을 기록했다. 데뷔 등판에서 122구 투지를 보였다. 키움은 7회 KIA 임기영이 올라오자 6안타 1볼넷을 묶어 대거 5점을 보탤다. KIA는 7회 이후 4점을 추가했으나 승패와 관련이 없었다. 마운드가 키움 타선을 막지못하며 완패했다.

로젠버그 13K 괴력, 홈런 3방 터진 키움 'LG 5연승 저지'..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LG 트윈스의 5연승을 저지했다. 키움은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와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연패에서 탈출했다. 키움 선발 로젠버그는 8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13탈삼진을 기록했다. 주승우가 9회 무사 1,2루에서 등판해 세이브를 기록했다. 1경기 13탈삼진은 지난해 후라도가 세운 키움 구단 역대 외국인 투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이다. 구단 역대 최다 기록은 2015년 4월 10일 한현희가 목동 KT전에서 세운 14탈삼진이다. 타선에서 송성문, 이주형, 박주홍이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렸다. LG 선발 에르난데스는 홈런 3방을 맞으며 5⅓이닝 4피안타 4사사구 4탈삼진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LG는 7연승 후 패배, 4연승 후 패배로 11승 2패가 됐다. LG는 키움 좌완 선발 로젠버그 상대로 홍창기(우익수) 신민재(2루수) 오스틴(지명타자) 문보경(3루수) 박동원(포수) 송찬의(좌익수) 문정빈(1루수) 구본혁(유격수) 최원영(중견수)이 선발

출장했다. 주전 좌타자 김현수, 오지환, 박해민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우타자가 6명이나 배치됐다. 키움은 송성문(2루수) 푸이그(좌익수) 이주형(중견수) 최주환(1루수) 박주홍(우익수) 전태현(3루수) 김웅빈(지명타자) 김재현(포수) 김태진(유격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다. 좌타자 피안타율이 높은 LG 선발 에르난데스 상대로 좌타자를 7명 내세웠다. 키움은 1회 선취점을 뽑았다. 톱타자 송성문이 에르난데스 상대로 볼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직구(149km)가 한가운데 높게 들어오자 호쾌한 스윙으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송성문의 개인 통산 첫 번째 1회 선두타자 홈런이었다. 키움은 3회 홈런으로 추가점을 뽑았다. 이주형이 홈런을 터뜨렸다. 2사 후 에르난데스 상대로 2볼에서 3구째 몸쪽 낮은 커터(141km)를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시즌 2호)을 쏘아올렸다. 키움은 4회는 또다시 홈런포가 터졌다. 선두타자 박주홍이 에르난데스의 초구 체인지업(134km)이 한가운데로 몰리자 지체없이 스윙을 했고,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이 됐다. 지난 5일 NC전에서 데뷔 5년 만에 첫 홈런을 때린 박주홍의 시즌 2번째 홈런이었다. 키움은 3-0으로 앞서 나갔다. 키움 선발 로젠버그는 5회까지 55구로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다. 6회 2사 후 최원영에게 빗맞은 타구는 1루수와 2루수가 뒤로 달려갔으나 잡지 못하고 우측 선상 안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다. 2루타를 내주며 퍼펙트가 깨졌다. 키움은 6회 선두타자 이주형이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최주환이 때린 타구는 우측 펜스에 맞는 2루타, 우익수가 점프 캐치를 시도했으나 잡지 못했다. 무사 2,3루에서 박주홍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보태 4-0이 됐다. 1사 2루에서 전태현이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렸는데, 좌익수의 홈 송구에 2루주자가 홈에서 태그 아웃됐다. 김웅빈이 볼넷을 골라 2사 1,2루가 됐고, 김재현의 유격수 땅볼로 이닝이 끝났다. LG는 8회 1사 후 7~9번 타순에 대타 작전을 펼쳤다. 문성주가 대타로 나와 로젠버그의 초구를 공략했으나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구본혁 타석에서 오지환이 대타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했다. 김현수는 대타로 들어서 우전 안타로 2사 1,2루 찬스를 이어갔다. 홍창기가 때린 타구는 좌측 펜스 앞까지 날아갔는데, 푸이그가 뒤로 달려가면서 가까스로 잡아냈다. 8회까지 96구를 던진 로젠버그는 9회도 마운드에 올랐다. 신민재와 오스틴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2루가 되자 교체됐다. 마무리 주승우가 올라와 문보경을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1사 1,3루에서 박동원은 2루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송찬의를 마지막 아웃으로 경기를 끝냈다.

‘신인 트리오 맹활약’ 키움, 시범경기 개막전 NC 3-1 제압..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신인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키움은 8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키움은 야시엘 푸이그(좌익수)-루벤 카디네스(우익수)-이주형(중견수)-송성문(2루수)-최주환(1루수)-김동엽(지명타자)-전태현(3루수)-김건희(포수)-김태진(유격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대만 가오슝 캠프에서 주전 3루수 후보로 부상한 신인 내야수 전태현은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신인 내야수 여동욱이 첫 타석부터 시원

한 홈런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주형은 2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고 푸이그도 2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으로 힘을 보탤다. 선발투수로 나선 신인 좌완투수 정현우는 3이닝 2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뒤이어 신인 우완투수 김서준이 마운드에 올라 3이닝 3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김성민(1이닝 무실점)-원종현(1이닝 무실점)-주승우(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호투하며 팀 승리를 지켰다. NC는 박민우(2루수)-김주원(유격수)-손아섭(우익수)-맷 데이비슨(1루수)-박건우(중견수)-권희동(지명타자)-박한결(좌익수)-김형준(포수)-서호철(3루수)이 선발출장했다. 김주원은 홈런을 날리며 기분 좋게 시범경기를 시작했지만 타선 전체적으로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다. 선발투수 로건 앨런은 3이닝 2피안타 4볼넷 3탈삼진 1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김진호(1이닝 무실점)-목지훈(3이닝 2실점)-전사민(1이닝 무실점)-김시훈(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실점을 최소화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키움은 3회초 1사에서 푸이그가 볼넷을 골라냈다. 카디네스는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지만 푸이그가 폭투로 2루까지 진루했고 이주형과 송성문이 볼넷을 골라내 2사 만루가 됐다. 최주환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선취점을 뽑았다. 김동엽은 타구를 높이 띄웠지만 좌익수에게 잡혀 추가점은 나오지 않았다. 기선을 제압한 키움은 5회 선두타자 푸이그가 안타로 출루했다. 대주자 여동욱은 폭투로 2루까지 들어갔고 카디네스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1사 2루에서 이주형은 1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달아나는 점수를 뽑았다. 이어진 1사 2루에서는 송성문과 최주환이 범타로 잡혔다. 키움에 끌려가던 NC는 6회말 1사에서 김주원이 솔로홈런을 쏘아올리며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자 키움도 곧바로 맞불을 놓았다. 7회초 선두타자 여동욱이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응수했다. NC는 7회말 박건우 안타, 권희동 안타, 박한결 투수 땅볼, 김형준 삼진, 서호철 볼넷으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한재환이 좌익수 뜬공으로 잡히면서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8회에도 선두타자 김주원이 2루타를 날리며 단숨에 득점권에 들어갔지만 후속타자들이 침묵했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 NC는 선두타자 송승환이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지만 천재환이 3루수 실책으로 1루에 살아들어갔다. 하지만 박세혁과 서호철이 모두 3루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경기가 끝났다.

한화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폰세 7이닝 무실점, 한화 2연승 이끌었다..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에이스의 압도적인 투구를 앞세워 2연승을 질주했다. 한화는 15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7이닝 1피안타 3볼넷 12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3승을 수확했다. 또한 지난 3일 롯데전(10탈삼진)에서 기록한 개인 한 경기 최다탈삼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승혁(1이닝 무실점)-김서현(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승리를 지켰다. 김서현은 시즌 4세이브를 따냈다.한화는 이진영(우익수)-에스테반 플로리얼(중견수)-문현빈(지명타자)-노시환(3루수)-김태연(좌익수)-채은성(1루수)-황영목(2루수)-최재훈(포수)-심우준(유격수)이 선발출장했다. 한화 타선은 4안타를 기록하며 2득점을 만들

어내는데 그쳤지만 승리하는데 충분한 점수였다. 이진영, 플로리얼, 황영목, 최재훈이 안타를 때려냈다. SSG는 최지훈(중견수)-정준재(2루수)-박성한(유격수)-한유섬(우익수)-이지영(포수)-오태곤(좌익수)-고명준(1루수)-현원희(지명타자)-박지환(3루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SSG 타선은 상대 선발투수 폰세를 공략하는데 실패하며 2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정준재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활약했다. 선발투수 드류 앤더슨은 5이닝 3피안타 1볼넷 1사구 9탈삼진 1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김건우(1이닝 1실점 비자책)-이로운(1이닝 무실점)-최민준(2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실점을 최소화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수비에서 실책 4개가 나온 것이 아쉬웠다. SSG는 이날 패배로 2연패에 빠졌다.한화는 1회초 선두타자 이진영이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플로리얼의 안타로 이어진 무사 1, 3루에서는 문현빈이 유격수 땅볼을 쳐 1루주자가 2루에서 잡혔지만 3루주자는 홈으로 들어왔고 비디오 판독 끝에 병살타를 면했다. 노시환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1사 1, 2루 찬스가 이어졌지만 김태연이 인필드 플라이로 아웃됐고 채은성도 스트라이크 아웃 낮아아웃으로 물러나며 추가점은 나오지 않았다. SSG는 1회말 선두타자 최지훈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정준재는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박성한이 삼진을 당한 동시에 더블스틸 시도에서 2루주자가 3루에서 아웃되며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개가 올라갔다. 한유섬은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무사 1, 2루 찬스가 허무하게 날아갔다. 2회에도 선두타자 이지영이 볼넷과 폭투로 2루까지 진루했고 고명준이 진루타로 2사 3루 찬스를 연결했지만 현원희가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한화는 4회초 1사에서 채은성이 볼넷을 골라냈다. 황영목은 삼진을 당했지만 최재훈이 안타를 치며 2사 1, 2루 찬스를 연결했다. 하지만 심우준이 2루수 뜯공으로 잡히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7회 선두타자 황영목이 안타를 때려낸 한화는 최재훈의 희생번트에 투수 김건우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1, 3루 찬스를 잡았다. 심우준은 삼진을 당했지만 최재훈이 2루 도루에 성공해 1사 2, 3루가 됐다. 이원석의 타구에는 3루수 박지환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2-0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루주자 최재훈이 3루에서 태그아웃 됐고 플로리얼은 삼진을 당해 크게 달아나지는 못했다. 한화는 9회 선두타자 황영목 볼넷과 최재훈 몸에 맞는 공, 심우준 희생번트로 1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원석이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히고 플로리얼이 삼진을 당하면서 달아나는 점수를 뽑지 못했다. 하지만 9회말 마무리투수 김서현이 마운드에 올라 2사에서 한유섬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큰 위기 없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12득점 폭발' 한화, 키움 꺾고 3연승 행진 '류현진 첫 승'..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구단주 김승연 회장의 시즌 첫 야구장 방문에 3연승으로 화답했다. 시즌 최다 12득점으로 타선이 대폭발했다. 한화는 1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를 12-2로 승리했다. 류현진이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고, 문현빈과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백투백 홈런을 합작하며 각각 4안타 3타점, 3안타 3타점으로 대폭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단 창단 40주년과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 축하 및 선수단 격려와 응원차 방문한 가운데 한화는 시즌 첫 선발타자 전 원안타에 최다 17안타 12득점으로 폭발하며 시즌 첫 3연승을 달렸다. 시즌 7승10패가 된 한화는 최하위에서도 벗어났다. 2연패를 당한 6승11패가 키움은 한화와 공동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한화 선발투수 류현진의 호투가 빛난 경기였다. 6이닝 1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압도했다. 3회초 2사 후 임병욱에게 우전 안타를 맞기 전까지 8타자 연속 퍼펙트 처리한 류현진은 5회 김웅빈에게 볼넷을 내준 것 외에 추가적인 출루 허용도 없었다. 4번 타자 루벤 카데나스가 출산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주형과 최주환이 각각 발목과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한 키움 타선은 류현진에게 막혀 이렇다 할 기회도 없었다. 출루가 두 번에 그쳤고, 그마저 2루는 밟지 못했다. 류현진은 특유의 칼날 제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키움 젊은 타자들을 압도했다.총 투구수 88개로 스트라이크 58개, 볼 30개. 최고 시속 146km, 평균 143km 직구(49개) 중심으로 커브(19개), 체인지업(12개), 커터(7개), 슬라이더(1개)를 구사했다. 평소보다 커브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키움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시즌 4번째 등판에서 첫 승을 신고한 류현진은 평균자책점도 3.18에서 2.35로 낮췄다. 한화 타선도 모처럼 류현진을 도왔다. 앞서 3경기에서 17이닝 3득점 지원에 그쳤지만 이날은 5득점을 지원했다. 1회말 첫 공격부터 선취점을 냈다. 1번 타자 황영목이 키움 선발 김윤하의 초구 직구를 중전 안타로 연결한 뒤 포수 김건희의 포일로 2루에 진루했다. 이어 문현빈이 김윤하의 5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전 적시타로 기선 제압했다. 2회말에도 한화는 김태연의 볼넷과 이진영의 우전 안타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최재훈의 번트가 1루수 파울플라이가 되며 흐름이 끊길 뻔했다. 하지만 심우준이 중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추가점을 냈고, 계속된 2사 1,3루에서 플로리얼이 우전 적시타를 때리면서 스코어를 3-0으로 벌렸다. 5회말에도 한화가 2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다. 1사 후 플로리얼이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문현빈이 우중간 1타점 2루타를 폭발했다. 2구째 우익선상 2루타성 타구가 비디오 판독 끝에 파울로 번복됐지만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어 노시환도 좌중간 적시타를 치면서 한화가 5-0으로 달아났다. 문현빈이 3타수 2안타 2타점 활약. 키움은 류현진이 내려간 뒤 7회초 2점을 따라붙었다. 한화 필승조 박상원을 상대로 2사 후 김웅빈의 볼넷과 상대 포일에 이어 장재영의 좌전 적시타를 치며 첫 득점을 냈다. 계속된 2사 1루에서 전태현의 높게 뜬 타구가 한화 중견수 플로리얼의 글러브를 맞고 떨어지면서 이닝이 끝나지 않았다. 실책으로 이어진 2사 1,3루에서 박상원의 폭투가 나오며 장재영이 홈에 들어왔다. 5-2로 쫓긴 한화는 7회말 시즌 첫 백투백 홈런 포함 7득점 빅이닝으로 훌쩍 달아났다. 선두타자 플로리얼이 키움 신인 우완 김서준의 3구째 한가운데 몰린 시속 143km 직구를 받아쳐 우측 8m 높이의 몬스터월을 넘겼다. 비거리 125m, 시즌 1호 홈런. 이어 문현빈도 김서준의 5구째 바깥쪽 높은 시속 142km 직구를 잡아당겨 몬스터월을 훌쩍 넘어가는 우월 솔로포로 장식했다. 비거리 130m, 문현빈의 시즌 3호 홈런.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시환의 좌측 2루타, 채은성의 볼넷에 이어 김태연이 우중간 1타점 2루타, 이진영의 1타점 중전 적시타, 최재훈의

3루 땅볼, 플로리얼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문현빈의 1타점 좌전 적시타로 5점을 더했다. 12득점으로 시즌 첫 두 자릿수 득점. 문현빈이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4타점, 플로리얼이 4타수 3안타 3타점, 노시환이 5타수 2안타 1타점, 이진영이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고르게 터졌다. 키움 선발 김윤하는 5이닝 8피안타 1볼넷 1탈삼진 5실점(4자책)으로 시즌 3패째를 안았다. 최고 시속 148km, 평균 144km 직구(56개) 중심으로 커브(23개), 포크볼(10개)을 섞어 던졌지만 한화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신인 김서준은 데뷔전에서 1⅓이닝 7피안타(2피홈런) 2볼넷 6실점으로 1군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메이저리그 시절 이후 6년 만에 류현진과 맞붙은 야시엘 푸이그도 맞대결에서 삼진 포함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득점권에 1명도 못나갔다’ 한화, 무기력한 4연패..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한화 이글스를 4연패에 몰아넣었다. 삼성은 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한화와의 경기에서 5-0 완승을 거뒀다. 선발투수 원태인은 7이닝 2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첫 승리다. 김태훈(1이닝 무실점)-송은범(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무실점 투구로 완벽하게 승리를 지켰다.삼성은 김지찬(중견수)-구자욱(좌익수)-김영웅(3루수)-강민호(포수)-르윈 디아즈(1루수)-박병호(지명타자)-이재현(유격수)-윤정빈(우익수)-류지혁(2루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삼성 타선은 9안타 2홈런을 몰아치며 한화 마운드를 무너뜨렸다. 김영웅(시즌 3호)과 박병호(시즌 4호)가 홈런포를 가동했고 강민호는 3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한화 선발투수 라이언 와이스는 4⅓이닝 7피안타(2피홈런) 4볼넷 1사구 4탈삼진 5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권민규(1이닝 무실점)-이태양(1이닝 무실점)-정우주(1이닝 무실점)-김서현(⅓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한화 타선은 황영목(2루수)-안치홍(지명타자)-김태연(좌익수)-노시환(3루수)-채은성(1루수)-에스테반 플로리얼(중견수)-이원석(우익수)-최재훈(포수)-심우준(유격수)이 선발출장했다. 한화 타선은 이날 3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태연이 홀로 멀티히트를 때려냈고 안치홍은 안타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타자들은 무안타로 침묵했다. 타선이 득점권에 1명도 나가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한화는 4연패 부진에 빠졌다.삼성은 1회말 2사에서 김영웅이 솔로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3회에는 선두타자 류지혁이 볼넷을 골라냈고 김지찬은 2루수 뜯공을 쳤지만 구자욱이 다시 볼넷을 골라냈다. 김영웅의 안타로 이어진 1사 만루에서는 강민호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점수차를 3-0으로 벌렸다.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5회 1사에서 강민호가 안타를 때려냈다. 디아즈는 우익수 뜯공으로 잡혔지만 박병호가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에 쐈기를 박았다. 이재현 안타, 윤정빈 볼넷, 류지혁 볼넷으로 이어진 2사 만루에서는 김지찬이 2루수 땅볼을 쳐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한화는 7회초 1사에서 김태연이 안타를 날렸다. 하지만 노시환이 삼진을 당했고 채은성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며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한화는 8회 선두타자 플로리얼이 삼진으로 아웃됐고 대타 문현빈이 나섰지만 또 삼진을 당했다.

대타 최인호는 1루수 포구 실책으로 살아나갔지만 심우준이 스트라이크 아웃 낫아웃으로 잡히며 이번에도 득점권에 주자를 보내지 못했다.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이도윤과 안치홍이 모두 범타로 물러난 한화는 김태연이 안타를 치며 마지막 기회를 만들었지만 노시환이 3루수 땅볼을 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두산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제2의 허경민' 임종성의 공수 활약에 힘입어 값진 승리를 추가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5-3 역전승을 거뒀다. 두산은 NC전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주말 시리즈를 1승 1무 1패로 마쳤다. 시즌 21승 3무 28패. 반면 4연승이 좌절된 NC는 23승 2무 23패가 됐다.

선취점은 NC 차지였다. 1회초 선두타자 최정원이 두산 선발 잭로그의 초구에 사구로 출루한 뒤 김주원이 또 잭로그의 초구에 중전안타를 쳤다. 이어 두 선수가 허를 찌르는 더블스틸로 무사 2, 3루를 만들었고, 최정원이 유격수 실책, 김주원이 박건우의 우전안타로 나란히 홈을 밟았다. NC 2-0 리드. 2회초에는 1사 후 김휘집이 2루타, 김한별이 좌전안타로 1, 3루 밥상을 차렸다. 이어 최정원의 스쿼즈번트 때 3루주자 김휘집이 홈을 파고 들었는데 비디오판독 결과 포수 김기연의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휘집이 달아나는 득점을 올렸다. 다만 김주원의 볼넷으로 이어진 1사 만루 찬스는 박민우, 박건우가 연달아 삼진을 당하며 무산됐다. 두산이 2회말 반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임종성, 박계범이 연속 안타, 정수빈이 야수선택으로 1사 1, 3루에 위치한 가운데 오명진이 좌익수 방면으로 추격의희생플라이를 쳤다.

3회말에는 선두타자 양의지, 양석환, 김재환이 3타자 연속 볼넷으로 NC 선발 최성영을 강판시켰다. 무사 만루에서 등장한 김기연이 바뀐 투수 전사민 상대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에 그쳤지만, 그 사이 3루주자 양의지가 홈을 밟으며 2-3 1점차 추격을 가했다. 승부처는 5회말이었다. 1사 후 양의지, 양석환이 연속 안타, 김재환이 7구 승부 끝 볼넷으로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김기연이 바뀐 투수 손주환 상대 밀어내기 볼넷을 얻으며 동점 타점을 올렸고, 계속된 만루에서 임종성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스코어를 뒤집었다. 결승타를 친 순간이었다. 두산 타선이 8회말 다시 힘을 냈다. 선두타자 임종성이 좌전안타, 정수빈이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 찬스에서 제이크 케이브가 1타점 우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승부의 쐈기를 박았다. 두산 선발 잭로그는 6이닝 5피안타 4사사구 6탈삼진 3실점 퀄리티스타트 호투로 시즌 3승(4패)째를 올렸다. 이어 이영하($\frac{2}{3}$ 이닝 무실점)-박치국($\frac{2}{3}$ 이닝 무실점)-김택연($1\frac{2}{3}$ 이닝 무실점) 순으로 뒤를 지켰고, 김택연은 시즌 8번째 세이브를 챙겼다. 타선에서는 케이브가 5타수 2안타 1타점, 임종성이 여러 차례 호수비와 함께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박계범이 4타수 2안타 활약했다. 양의지, 양석환은 1안타 2볼넷, 김재환은 3볼넷으로 나란히 3출루 경기를 치렀다. NC는 선발 최성영

이 2이닝 3피안타 5사사구 2탈삼진 2실점 조기 강판됐다. 패전투수는 2⅓이닝 2실점(비자책)을 기록한 두 번째 투수 전사민. 김주원, 김휘집의 2안타는 패배에 빛을 보지 못했다.

두산은 하루 휴식 후 27일부터 수원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NC는 인천으로 이동해 SSG 랜더스를 만난다.

두산이 우여곡절 끝 NC와 강우콜드 무승부를 거뒀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4차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9회말 종료 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우콜드 무승부가 선언됐다. 두산은 시즌 20승 3무 27패, NC는 22승 2무 22패가 됐다. 홈팀 두산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맞아 정수빈(중견수) 제이크 케이브(우익수) 양의지(지명타자) 양석환(1루수) 김재환(좌익수) 김기연(포수) 오명진(유격수) 강승호(2루수) 임종성(3루수) 순의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이에 NC는 두산 선발 콜어빈 상대 한석현(중견수) 김주원(유격수) 권희동(좌익수) 박건우(지명타자) 김형준(포수) 천재환(우익수) 김휘집(3루수) 도태훈(1루수) 김한별(2루수) 순으로 맞섰다. 양 팀 모두 경기 초반 지독한 득점권 빈타에 시달렸다. NC는 1회초 1사 후 김주원, 권희동이 연달아 볼넷을 골라냈지만, 박건우가 우익수 뜯공으로 물러난 뒤 더블스틸을 시도한 3루주자 김주원이 홈에서 아웃됐고, 두산은 2사 후 양의지가 좌전안타, 양석환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2사 1, 2루 밥상을 차렸으나 김재환의 잘 맞은 타구가 3루수 정면으로 가는 볼운이 따랐다. 두산은 2회말 만루 기회도 놓쳤다. 2사 후 강승호, 임종성이 연속 안타, 정수빈이 볼넷으로 베이스를 꽉 채운 가운데 케이브가 중견수 뜯공으로 물러났다. NC도 4회초 권희동의 볼넷, 박건우의 사구로 맞이한 1사 1, 2루 찬스가 김형준의 헛스윙 삼진, 천재환의 유격수 직선타로 무산됐다. 천재환의 안타성 타구가 유격수 오명진의 그림 같은 수비에 막혔다. 두산이 5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1사 후 정수빈이 빠른 발을 이용한 내야안타, 케이브가 우전안타로 1, 3루에 위치한 상황에서 양의지가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0의 균형을 깼다. 6회초 NC 공격에서는 벤치클리어링이 발발했다.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박건우가 타석에 등장한 상황. 볼카운트 1B-2S에서 두산 선발 콜어빈의 7구째 149km 직구가 박건우의 머리 쪽으로 향했고, 이를 피한 박건우가 곧바로 콜어빈을 향해 걸어가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포수 김기연이 빠르게 김기연을 말린 가운데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며 벤치클리어링이 발발했다. 박건우는 앞서 4회초 타석에서 콜어빈의 149km 직구에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맞으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던 터. 당시에는 아무런 일 없이 1루로 걸어 나갔는데 다음 타석에서 머리 쪽으로 위협구가 날아오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두산 선수들이 흥분한 박건우를 진정시켰다. 박건우와 절친 사이인 양석환이 박건우를 1차적으로 진정시켰고, 박건우의 옛 스승인 고토 고지 코치도 박건우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콜어빈도 동시

에 박건우를 향해 무언가를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NC 주장 박민우와 로건이 콜어빈을 막아섰다. 양 팀 선수들은 큰 충돌 없이 다시 각자의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박건우와 콜어빈의 승부가 계속됐고, 콜어빈은 10구 승부 끝 박건우를 유격수 땅볼 처리하고 이닝을 끝냈다.

NC 타선이 8회초 다시 힘을 냈다. 1사 후 김한별이 중전안타, 대주자 투입된 박영빈이 상대 폭투로 2루에 도달했다. 대타 박민우가 좌익수 뜬공에 그쳤지만, 김주원이 바뀐 투수 김택연 상대 볼넷을 골라낸 뒤 권희동이 바뀐 투수 최지강 상대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1타점 동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정규이닝 종료 후 잠실구장에 폭우가 쏟아지며 오후 9시 50분 부로 경기가 중단됐다. 연장 10회초를 앞두고 30분을 기다렸지만,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오후 10시 20분 부로 강우콜드 무승부가 선언됐다. 두산 선발 콜어빈은 6이닝 1피안타 4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 97구 호투에도 불펜 난조에 시전 6번째 승리가 무산됐다. NC 선발 로건의 7이닝 7피안타 2볼넷 6탈삼진 1실점 104구 호투도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8회 터진 만루홈런 한 방으로 길었던 5연패를 끊었다. 두산은 2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6-5로 승리하며 SSG의 시리즈 스윙을 저지했다. 두산은 이날 승리로 5연패에서 탈출했다. 연패탈출에 도전한 두산은 정수빈(중견수)-제이크 케이브(우익수)-양의지(지명타자)-양석환(1루수)-김재환(좌익수)-김기연(포수)-오명진(유격수)-강승호(2루수)-임종성(3루수)이 선발출장했다. 임종성은 결승 만루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만루홈런이 데뷔 첫 홈런이다. 오명진도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힘을 보탤다. 선발투수 홍민규는 3이닝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1사구 1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박치국(2이닝 1실점)-이영하(1이닝 무실점)-고효준(1이닝 무실점)-최지강(1이닝 무실점)-김택연(1이닝 1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역투를 펼치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택연은 시즌 7세이브를 따냈다. 최지훈이 부상으로 결장한 SSG는 정준재(2루수)-박성한(유격수)-최정(지명타자)-한유섬(우익수)-고명준(1루수)-최준우(좌익수)-안상현(3루수)-신범수(포수)-채현우(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한유섬(시즌 2호)과 박성한(시즌 3호)은 홈런을 터뜨렸고 채현우도 멀티히트를 때려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선발투수 김광현은 6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이로운($\frac{1}{3}$ 이닝 무실점)-노경은($\frac{2}{3}$ 이닝 무실점)-김민($\frac{2}{3}$ 이닝 5실점)-박시후($\frac{1}{3}$ 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승리를 내줬다. SSG는 이날 패배로 4연승을 마감했다. SSG는 3회초 선두타자 채현우가 안타와 도루로 2루까지 진루했다. 정준재는 유격수 땅볼로 잡혔지만 채현우가 이후 폭투로 3루에 진루했고 박성한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하지만 최정이 삼진을 당하고 박성한은 2루 도루에 실패하면서 추가득점 없이 이닝이 끝났다. 4회 선두타자 한유섬의 솔로홈런으로 한 점을 더 추가한 SSG는 고명준의 안타와 최준우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찬스를 잡았다. 두산은 박치국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안상현이 희생번트로 1사 2, 3루 찬스를 연결했고 신범수의 볼넷에 이어서 채현우의 1타점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났다. 정준재는 2루수 땅볼로 잡혔다. 5회에는 선두타자 박성환이 솔로홈런을 쏘아올렸다. 두산은 6회까지 김광현에게 막혀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렇지만 7회말 선두타자 김재환이 안타를 때려내면서 김광현이 마운드를 내려갔다. 김기연은 바뀐 투수 이로운을 상대로 안타를 날리며 무사 1, 2루 찬스를 잡았다. 오명진은 1타점 적시타를 날려 한 점을 만회했다. 대타 김인태는 삼진을 당했지만 임종성이 안타를 때려내며 1사 만루 찬스를 연결했다. SSG는 다시 투수를 노경은으로 교체했다. 두산은 정수빈이 2루수 직선타로 잡혔고 케이브도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만루 기회를 날렸다. 8회 1사에서 양석환이 2루타를 날린 두산은 김재환과 김기연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다시 한 번 만루 기회를 잡았다. 오명진은 1타점 내야안타로 추격하는 점수를 뽑았다. 박계범은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임종성이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SSG는 9회초 선두타자 최준우가 안타를 때려냈고 대타 최지훈도 안타를 날리며 무사 1, 2루 찬스를 만들었다. 조형우의 진루타로 이어진 1사 1, 3루에서 채현우는 1타점 진루타를 쳐 1점차 승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2사 2루에서 김찬형이 삼진을 당하며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삼성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4연승을 달렸다. 삼성은 2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이로써 지난 24일 대구 KIA 타이거즈전 이후 4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반면 롯데는 3연패 수렁에 빠졌다. 삼성은 지명타자 김지찬-중견수 김성윤-좌익수 구자욱-1루수 르윈 디아즈-포수 강민호-2루수 류지혁-유격수 이재현-3루수 김영웅-우익수 박승규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선발 투수는 최원태. 롯데는 중견수 장두성-2루수 고승민-지명타자 빅터 레이예스-좌익수 전준우-우익수 윤동희-유격수 전민재-1루수 나승엽-3루수 손호영-포수 손성빈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 선발 마운드에 올랐다. 롯데는 1회 2사 후 빅터 레이예스의 우월 솔로 아치로 1점을 먼저 얻었다. 롯데는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손성빈이 좌월 1점 홈런을 터뜨려 2-0으로 달아났다. 삼성은 5회 빅이닝을 완성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1사 후 박승규가 2루타를 터뜨리며 추격의 시작을 알렸다. 김지찬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그사이 박승규는 3루에 안착했다. 계속된 2사 3루 상황에서 김성윤이 좌중간 안타를 때려 1점을 만회했다. 발빠른 김성윤은 2루를 훔쳐 상대를 압박했다. 구자욱의 우전 안타로 2-2 승부는 원점. 곧이어 르윈 디아즈가 볼넷을 골랐다. 2사 1,2루서 강민호가 2루타를 날려 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4-2. 롯데는 6회 삼성 두 번째 투수 임창민을 상대로 1사 2,3루 기회를 잡았다. 롯데 벤치는 손성빈 대신 유강남을 대타로 내세웠다. 그러자 삼성 벤치는 좌완 배찬승을 마운드에 올렸다. 첫 타자 유강남을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유도한 데 이어 장두

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위기 뒤 찬스, 찬스 뒤 위기'라고 했던가. 삼성은 6회말 공격 때 1사 1,2루 달아날 기회를 잡았다.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이 연속 적시타를 때려 내며 3점을 추가했다. 롯데는 7회 2사 3루서 윤동희의 적시타로 1점 더 쫓아갔다. 삼성은 7회 이재현의 적시타에 이어 8회 강민호의 1타점 2루타로 쐐기를 박았다. 삼성 선발 최원태는 5이닝 3피안타(2피홈런) 5볼넷 7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4승째를 거뒀다. 김성윤은 5타수 4안타 2타점 1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강민호는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매서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최근 10경기 타율 2할2리에 불과했던 구자욱은 KBO리그 43번째 2500루타를 달성하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올리며 타격감 회복을 알렸다. 반면 롯데 선발 박세웅은 5⅓이닝 6피안타 4볼넷 2탈삼진 6실점(5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한편 5회초 벤치클리어닝이 발생했다. 상황은 이렇다. 삼성 선발 최원태가 던진 공에 롯데 전준우가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 전준우가 마운드로 달려가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포수 강민호가 전준우를 감싸 안으며 수습에 나섰다. 주장 구자욱도 최원태를 다독이며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최원태는 1루로 걸어가는 전준우를 향해 무언가 이야기를 건넸고 전준우도 화가 난 나머지 마운드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최원태도 전준우에게 다시 다가가 고개숙여 인사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전준우도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KIA 타이거즈를 이틀 연속 제압하고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다. 삼성은 2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IA와의 홈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좌완 윤영철을 선발 투수로 내세운 KIA는 유격수 박찬호-우익수 오선우-3루수 김도영-지명타자 최형우-1루수 황대인-좌익수 김석환-2루수 김규성-포수 김태균-중견수 박정우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삼성은 중견수 김지찬-우익수 김성윤-지명타자 구자욱-1루수 르윈 디아즈-3루수 김영웅-2루수 류지혁-포수 강민호-좌익수 박승규-유격수 양도근으로 타순을 짰다. 선발 투수는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KIA가 먼저 웃었다. 1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김도영이 삼성 선발 원태인에게 일격을 가했다. 볼카운트 1B-2S에서 4구째 직구(149km)를 공략해 오른쪽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비거리는 115m. 이로써 김도영은 데뷔 후 처음으로 4경기 연속 손맛을 봤다. 반격에 나선 삼성은 0-1로 뒤진 1회말 공격 때 르윈 디아즈의 한 방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2사 1루서 첫 타석을 맞이한 르윈 디아즈는 KIA 좌완 선발 윤영철의 초구 직구를 힘껏 잡아당겨 우월 투런 아치로 연결했다. 비거리는 125m. 이후 0의 행진이 이어졌다. 침묵을 깬 건 KIA였다. 7회 2사 후 김태균이 삼성 두 번째 투수 백정현을 상대로 좌중월 솔로 아치를 날려 2-2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2-2로 맞선 8회 1사 1,2루 기회를 잡았다.

삼성 9회 디아즈의 끝내기 홈런으로 3-2로 이겼다. 9회 선두 타자로 나선 르윈 디아즈는 조상우의 1구째 포크볼을 밀어쳐 좌측 담장 밖으로 날려 버렸다. 경기 종료. 삼성 선발 원태인은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

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계투진이 빠격거리는 바람에 시즌 4승 달성이 불발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5경기 5패 평균자책점 9.64를 기록 중인 KIA 선발 윤영철은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다음 등판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삼성은 24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KIA 타이거즈를 8-4로 눌렀다. 좌완 이승현을 선발 투수로 내세운 삼성은 지명타자 김지찬-중견수 김성윤-좌익수 구자욱-1루수 르윈 디아즈-3루수 김영웅-포수 강민호-2루수 류지혁-우익수 박승규-유격수 양도근으로 타순을 짰다. KIA는 유격수 박찬호-2루수 윤도현-3루수 김도영-지명타자 최형우-우익수 이우성-1루수 변우혁-좌익수 오선우-포수 한준수-중견수 김호령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선발 투수는 우완 김도현이다. KIA가 먼저 웃었다. 4회 선두 타자 김도영이 중전 안타로 출루해 2루를 훔쳤다. 최형우가 삼성 선발 이승현을 상대로 선제 투런 아치를 쏘아 올렸다. 풀카운트 끝에 7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외야 스탠드에 꽂았다. 비거리는 120m. 이우성과 변우혁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오선우, 한준수, 김호령이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3-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삼성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3회 선두 타자 김성윤이 볼넷을 골랐다. 구자욱의 1루 땅볼 때 김성윤은 2루에서 아웃됐다. 르윈 디아즈의 안타와 상대 실책으로 주자 2,3루가 됐다. 김영웅이 볼넷을 골라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삼성. 강민호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했지만 류지혁이 좌중간 2루타를 날려 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3-3 승부는 원점. KIA는 3-3으로 맞선 7회 2사 후 김도영이 삼성 필승조 김태훈을 상대로 좌월 솔로 아치를 날려 4-3으로 앞서갔다. 삼성은 7회 말 공격 때 박승규 대신 타석에 들어선 이재현이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았다. 삼성 벤치는 이재현 대신 이성규를 대주자로 투입했다. 양도근과 김지찬이 삼진,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상대 폭투로 이성규는 2루에 안착했다. 곧이어 김성윤의 내야 안타 때 이성규가 3루를 거쳐 홈까지 파고 들었다. 4-4 승부는 원점. 삼성은 8회 선두 타자 르윈 디아즈가 볼넷으로 걸어나가자 대주자 심재훈을 투입했다. 김영웅이 삼진으로 물러난 뒤 강민호가 볼넷을 골랐다. 1사 1,2루. 류지혁이 중전 안타를 때려 주자 만루 기회를 잡았다. 이성규가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 5-4로 역전에 성공했다. 계속된 만루 상황에서 양도근도 볼넷을 골랐다. 6-4. 김지찬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 류지혁이 홈에서 아웃됐다. 곧이어 성윤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4이닝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두 번째 투수 이승민은 2이닝을 무실점(1피안타 4탈삼진)으로 잘 막았다. 8회 2사 후 마운드에 오른 이호성은 1⅓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류지혁은 4타수 2안타 3타점, 김성윤은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공격을 주도했다. KIA 선발 김도현은 4⅓이닝 5피안타 3볼넷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렸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KIA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KIA 타이거즈가 2연패에서 탈출했다. KIA는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7-5로 승리했다. 선발 아담 올러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최형우의 역전포, 오선우의 결승 솔로포, 황대인의 2타점 빼기 적시타가 빛났다. 키움은 8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7연패 탈출에 나선 키움은 송성문(3루수) 최주환(1루수) 이주형(중견수) 카디네스(우익수) 임병욱(좌익수) 이원석(지명타자) 김태진(2루수) 김건희(포수) 어준서(유격수)로 선발라인업을 꾸렸다. 베테랑 이원석을 6번타자로 기용했다. 홍원기 감독은 "제몫을 하고 있는 2선발 하영민이 나가는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한다"며 호투를 주문했다. KIA는 박찬호(유격수) 오선우(우익수) 김도영(3루수) 최형우(지명타자) 한준수(포수) 김석환(좌익수) 황대인(1루수) 김호령(중견수) 홍종표(2루수)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범호 감독은 "황대인이 2군에서 정확한 타격을 했다. 계속 기회를 주면 장타도 나올 것이다"며 기대했다. KIA 선발 올러의 제구가 흔들리자 키움의 초반 공세를 펼쳤다. 1회초 2사 1,2루 기회를 놓쳤으나 2회 선두타자 이원석의 볼넷으로 기회를 잡았다. 1사후 김건희가 직구를 가볍게 밀어쳐 우익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작렬했다. 어준서가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리드오프 송성문이 155km 직구를 받아쳐 주자일소 우중간 2루타를 터트렸다. KIA는 득점타가 나오지 않았다. 1회말 1번타자 박찬호가 우전안타를 때리고 도루에 성공했으나 오선우 김도영 최형우가 침묵했다. 2회도 1사후 김석환과 황대인이 안타로 출루했지만 김호령 삼진, 홍종표 외야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도 2사1,2루에서 한준수가 무력하게 2루 땅볼을 쳤다. 4회에서도 홍종표의 볼넷, 박찬호의 우익수 앞 안타로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으나 오선우가 1루수 병살타를 쳤다. 하영민의 정교한 피칭이 빛났다. 그러나 김도영이 3유간을 빠지는 적시타를 터트리 영의 행진을 마감했다. 김도영은 곧바로 도루를 성공했으나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고 교체되는 악재가 발생했다.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최형우가 시즌 10호 중월 투런홈런을 날려 3-2로 역전에 성공했다. 통산 세 번째 2500안타 대기록이었다. 키움은 7회 승부의 균형을 맞추었다. 전상현이 올라오자 김태진이 우월 2루타를 터트고 이어 김건희가 중전적시타를 날려 동점에 성공했다. 그러자 KIA도 7회말 빅이닝으로 승기를 잡았다. 1사후 오선우의 좌중월 솔로포(4호)를 앞세워 4-3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이어진 2사1,2루에서 대타 이우성이 우익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빗맞은 1타점 2루타를 터트리 5-3으로 벌렸다. 황대인이 또 다시 우중간 2타점 적시타를 날려 7-3까지 달아났다. 올리는 2회 2실점 이후 6회까지 영의행진을 펼쳤다. 6이닝 106구 6피안타 1볼넷 7탈삼진 2실점의 호투였다. 제구가 흔들렸지만 3회부터는 안정감을 되찾아 8번째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그러나 전상현이 동점을 허용해 승리에 실패했다. 키움 하영민은 4회까지 호투했으나 5회 3점을 내주는 아쉬운 투구를 했다. 7회 양지율과 김성민이 각각 2실점했다. 키움도 KIA 마무리 정해영을 상대로 막판 공세를 펼쳤다. 9회초 1사후 김건희 오선진 송성문이 연속안타를 날려 한 점을 추격했다. 이어 등장

한 최주환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5-7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격에 실패했고 8연패를 막지 못했다.

KIA 타이거즈가 역전극을 연출하며 2연승을 올렸다. KIA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장단 17안타를 터트리며 13-7로 승리했다. 오선우 이틀 연속 홈런, 윤도현은 추격의 홈런과 동점타, 최형우는 역전 결승타를 때렸다. 위닝시리즈를 확정지으며 26승26패 승률 5할에 복귀했다. 키움은 9연패를 당했다. 키움 타자들이 1회 KIA 선발 양현종을 흔들었다. 송성문이 초구 안타로 출루하고 도루에 성공했다. 야구천재 이종범이 1997년 세운 29연속 도루를 뛰어넘어 30연속 도루 신기록을 수립했다. 곧바로 최주환이 중전안타로 불러들였다. 카디네스의 좌전 안타에 이어 이주형의 적시타로 2-0으로 앞섰다. KIA는 1회 2사1,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2회말 1사후 황대인이 좌익수 왼쪽 2루타가 터졌고 김호령의 볼넷, 김규성의 우전안타로 만루를 만들었다. 박찬호의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와 힘겹게 한 점을 추격했다. 이어 3회는 오선우가 2경기 연속 홈런을 날려 승부의 균형을 맞추었다. 양현종이 2회부터 안정감을 찾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5회 2사까지 잘 잡은 뒤 갑자기 실투가 나오며 무너졌다. 키움은 카디네스의 좌전안타, 이주형의 중전안타, 대타 임지열의 볼넷으로 만루찬스를 잡았다. 포수 김건희가 실투성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맞히는 싹쓸이 3루타를 터트리며 5-2로 리드를 잡았다. 이형종이 또 우전적시타로 불러들여 6-2까지 달아났다. 김도영이 빠진 KIA도 물러서지 않았다. 5회말 윤도현이 좌월솔로포(1호)를 터트리며 추격전을 개시했다. 1사후 최형우의 우중간 2루타와 김태군의 안타로 1,3루 기회를 잡았다. 키움 선발 김연주를 구원한 박윤성의 폭투로 한 점을 추격했고 김석환의 우전안타때 상대 우익수의 실책으로 김태군이 홈을 밟아 5-6까지 따라붙었다. 6회 또 다시 빅이닝을 만들어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김규성이 내야안타, 박찬호의 보내기번트에 이어 윤도현이 우전적시타를 날려 6-6 동점에 성공했다. 오선우의 우전안타와 최형우의 희생플라이가 나와 역전했다. 이어 김태군의 좌월 2루타로 또 한 점을 보냈고 김석환 사구에 이어 황대인과 김호령이 연속안타를 날려 10-6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8회말에는 김호령이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나성범 김선빈 패트릭 위즈덤에 이어 김도영까지 부상으로 빠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화끈한 타격으로 연승을 따내는 모습이었다. KIA 선발 양현종은 4⅓이닝 10안타 2볼넷을 내주고 6실점으로 부진했다. 5회 성영택이 구원에 나서 추가실점을 막았고 좌완 이준영과 사이드암 윤중현이 무실점 투구를 이어간 것이 역전의 발판이었다. 키움은 타선이 5회까지 6점을 뽑았으나 마운드가 지키지 못했다. 최근 2경기에서 10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던 선발 김연주는 4⅓이닝 7피안타(2홈런) 1볼넷 4실점했다. 박윤성 1실점했고 구원에 나선 원종현이 KIA 타선을 막지 못하고 4실점으로 부진한 것이 역전패로 이어졌다. 3개의 실책도 발목을 잡았다. 임지열이 9회 솔로포를 터트렸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MVP 출신 김도영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

의 4연승을 저지했다. KIA는 2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7-6으로 승리했다. 반면 삼성은 지난 20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 이후 연승 행진을 '3'에서 마감했다.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을 선발 투수로 내세운 KIA는 유격수 박찬호-2루수 윤도현-3루수 김도영-지명타자 최형우-1루수 오선우-좌익수 김석환-우익수 이우성-포수 김태군-중견수 박정우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삼성은 중견수 김지찬-우익수 김성윤-지명타자 구자욱-1루수 르윈 디아즈-3루수 김영웅-좌익수 김현곤-2루수 류지혁-포수 김재성-유격수 이재현으로 타순을 짰다. 선발 투수는 황동재. 선취점은 KIA의 뛴. 2회 1사 후 이우성의 중전 안타와 김태군의 내야 안타로 1,2루 기회를 잡았다. 박정우가 풀카운트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박찬호가 볼넷을 골라 주자 만루가 됐다. 윤도현의 안타로 이우성과 김태군이 홈을 밟으며 2-0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삼성은 2회말 공격 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선두 타자 르윈 디아즈가 중전 안타로 누상에 나갔다. 김영웅이 우익수 오른쪽 2루타를 날려 2,3루가 됐다. 김현곤과 류지혁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다. 계속된 2사 1,2루서 김재성이 중전 안타를 때려 주자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2-2 승부는 원점. KIA는 3회 최형우의 볼넷, 김석환의 안타로 만든 1사 1,3루서 이우성의 내야 땅볼로 3-2로 다시 앞서갔다. 그러자 삼성은 4회 김영웅의 안타, 김현곤의 몸에 맞는 공 그리고 류지혁의 희생 번트로 1사 2,3루 역전 기회를 잡았다. 김재성이 좌중간 안타를 날려 3-3 동점이 됐다. 계속된 1,3루서 이재현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4-3으로 리드를 가져왔다. KIA는 5회 오선우의 2루타와 포일에 이어 김석환의 내야 땅볼로 4-4 균형을 맞췄다. 삼성은 4-4로 맞선 7회 이재현과 김지찬의 연속 안타로 1사 1,3루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KIA 벤치는 선발 제임스 네일 대신 좌완 최지민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성윤이 좌익수 뜬공을 날려다. 3루 주자 이재현은 리터치를 시도했으나 홈에서 아웃됐다. 삼성 벤치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나 원심은 번복되지 않았다. KIA는 8회 1사 1루서 김도영이 삼성 김재윤을 상대로 좌중월 투런 아치를 작렬했다. 초구 145km 짜리 직구를 받아쳐 담장 밖으로 날려 버렸다. KIA는 이우성의 적시타로 1점 더 달아났다. 삼성은 8회말 공격 때 김영웅이 우월 2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1점 차로 추격했으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6⅓이닝 8피안타 1볼넷 8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삼성 선발 황동재는 2⅓이닝 4피안타 4볼넷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LG에 관한 최근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와 1~2위 맞대결에서 위닝시리즈에 성공했다. LG는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와 시즌 8차전 맞대결에서 3-1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손주영이 7이닝 5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6승째를 기록했다. 신인 김영우가 1이닝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문보경이 동점 홈런, 김현수가 역전 결승타를 때렸다. 한화 선발 와이스는 6이닝 6피안타 1피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주현상이 1이닝 1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한화는 플로리얼(중견수) 하주석(유격수) 문현빈(좌익수) 노시환(3루수) 채은성(1루수) 이

진영(우익수) 안치홍(지명타자) 이재원(포수) 이도윤(2루수)이 선발 라인업으로 출장했다. LG는 이날 문성주(우익수) 김현수(좌익수) 오스틴(1루수) 문보경(지명타자) 오지환(유격수) 구본혁(3루수) 박해민(중견수) 신민재(2루수) 이주헌(포수)이 선발 출장했다. 오지환이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 LG는 1회말 1사 후 김현수가 우전 안타로 출루했고, 오스틴의 헛스윙 삼진 아웃 때 2루 도루에 성공했다. 2사 2루에서 문보경이 때린 타구는 1루수 땅볼 아웃으로 공격이 끝났다. 한화는 1~2회 모두 삼자범퇴로 끝났다. 3회 2사 후 이도윤이 1루수 옆 내야 안타로 첫 출루에 성공했다. 플로리얼이 때린 우중간 안타성 타구를 중견수 박해민이 전력질주, 슈퍼 캐치로 잡아냈다. LG는 4회 무사 1,2루 찬스를 잡았으나 득점에 실패했다. 선두타자 김현수가 좌전 안타로 출루했고, 오스틴은 3유간을 빠지는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문보경이 와이스의 직구에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고, 오지환은 우익수 정면 뜬공으로 아웃됐다. 2사 후 구본혁이 때린 잘 맞은 타구는 우익수가 뒤로 물러나며 잡아냈다. 한화는 5회 선두타자 채은성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진영이 중전 안타를 때려 출루했고, 안치홍의 유격수 땅볼로 선행 주자가 아웃됐다. 2사 1루에서 이재원이 중견수와 2루수 사이에 떨어지는 빗맞은 안타를 때려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이도윤이 때린 타구는 배트가 부러지면서 유격수 앞으로 힘없이 굴러갔고, 유격수가 잡아 2루로 던져 포스 아웃, 이닝이 끝났다. LG는 5회말 선두타자 박해민이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다. 신민재는 희생번트를 시도했으나 파울이 됐고, 빗맞은 3루수 앞 내야 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들었다. 이주헌의 희생번트 타구를 잡은 투수 와이스가 3루로 과감하게 던져 아웃시켰다. 1사 1,2루에서 문성주는 풀카운트에서 와이스의 스윙퍼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김현수 타석에서 폭투가 나와 주자들은 3루와 2루로 진루했다. 김현수가 때린 타구는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한화는 6회 득점 기회를 잡았다. 선두타자 플로리얼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하주석이 볼넷을 골라 나갔다. LG는 투수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하고 내려갔다. 문현빈이 유격수 옆을 빠지는 좌전 안타를 때렸고, 1루주자는 3루까지 달렸다. 1사 1,3루에서 4번타자 노시환이 타석에 들어섰다. 노시환은 2루수 땅볼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 들였다. 2사 2루에서 채은성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두 차례 무사 1,2루 찬스를 놓친 LG는 대포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6회말 1사 후 문보경이 와이스 상대로 3볼-1스트라이크에서 스윙퍼가 한가운데로 몰린 실투를 놓치지 않고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 129m의 시즌 12호 홈런. 스코어는 1-1 다시 균형을 맞췄다. 한화는 7회말 선발 와이스(96구)에 이어 주현상이 2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LG는 선두타자 박해민이 2루수 글러브를 스치고 외야로 빠지는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신민재가 희생번트를 성공시켜 1사 2루가 됐다. 이주헌 타석에 박동원이 대타로 나왔다. 볼넷을 골라 1루로 걸어나갔다. 1사 1,2루 찬스에서 문성주는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현수가 우익수 앞 적시타를 때려 2-1로 역전시켰다. LG는 8회 선발 손주영에 이어 이지강이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다. 이도윤을 2루수 뜬공 아웃을 잡고, 플로리얼에게 2루수 옆 내야 안타를 허용했다. 하주석을 유격수 땅볼 병살

타로 이닝을 끝냈다. LG는 8회말 선두타자 문보경이 바뀐 투수 김범수 상대로 좌중간 안타로 출루했다. 1루에서 대주자 최원영으로 교체. 오지환이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한화는 다시 투수를 우완 정우주로 교체했다. 구본혁은 중견수 뜬공 아웃으로 물러났고, 박해민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신민재가 파울 8개를 때려내며 13구째 볼넷으로 출루했다. 박동원이 초구 헛스윙을 했는데, 정우주의 슬라이더가 포수 뒤로 빠졌다. 3루주자가 재빨리 홈으로 뛰어와 득점, LG는 3-1로 달아났다. 이후 박동원은 포수 땅볼로 아웃됐다. LG는 9회 신인 김영우가 등판해 문현빈을 삼진으로 잡고, 노시환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채은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2아웃. 이진영을 마지막 아웃을 잡고 데뷔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손주영의 호투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LG는 23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Bank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염경엽 감독은 KBO리그 역대 12번째 통산 600승을 달성했다. 선발 투수 손주영은 7이닝 2피안타 2볼넷 11탈삼진 1실점 호투로 시즌 5승을 수확했다. 11탈삼진은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탈삼진 신기록이다. 이전 기록은 2024년 9월 21일 잠실 두산전에서 기록한 9개다. 김진성(1이닝 무실점)-박명근(1이닝 1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팀 승리를 지켰다. 박명근은 시즌 3세이브를 따냈다. LG는 문성주(지명타자)-김현수(좌익수)-오스틴 딘(1루수)-박동원(포수)-오지환(유격수)-구본혁(3루수)-송찬의(우익수)-박해민(중견수)-이영빈(2루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오스틴은 시즌 14호 홈런을 쏘아 올렸고 박해민은 3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 2도루로 활약했다. SSG는 최지훈(중견수)-박성한(유격수)-최정(3루수)-고명준(1루수)-한유섬(지명타자)-안상현(2루수)-조형우(포수)-오타곤(우익수)-채현우(좌익수)가 선발출장했다. SSG 타선은 LG 마운드에 묶여 8회까지 2안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9회 3안타를 기록했지만 경기를 뒤집을 점수는 나오지 않았다. 선발투수 미치 화이트는 6이닝 4피안타 2볼넷 2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투수가 됐다. 박시후(1⅓이닝 무실점)-김민(0이닝 1실점)-최민준(⅔이닝 무실점)-최현석(1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실점을 최소화 했지만 팀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SSG는 이날 패배로 2연패에 빠졌다. LG는 1회초 1사에서 김현수가 안타와 폭투로 득점권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스틴이 유격수 땅볼을 쳤고 박동원이 삼진을 당해 1사 2루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SSG는 1회말 선두타자 최지훈이 안타와 도루로 2루까지 진루했다. 박성한은 삼진을 당했지만 최정이 볼넷을 골라내 1사 1, 2루 찬스를 만들었다. 고명준의 진루타로 이어진 2사 1, 3루에서는 폭투가 나오면서 SSG가 선취득점에 성공했다. 고명준은 우익수 뜬공으로 잡혔고 한유섬은 삼진을 당하면서 추가 득점 기회를 날렸다. LG는 3회초 선두타자 박해민이 안타를 날렸고 이영빈이 볼넷을 골라냈다. 이후 더블스틸에 성공하며 무사 2, 3루 찬스가 만들어졌다. 문성주는 1타점 진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김현수는 1타점 희생플라이로 경기를 뒤집었다. 오스틴은 2루수 뜬공으로

잡혔다. 5회 1사에서 선두타자 이영빈이 안타를 치고 출루한 LG는 문성주의 타구가 투수 화이트에게 잡혔지만 송구실책이 나와 1사 1, 2루 찬스를 잡았다. 김현수는 진루타로 2사 2, 3루 찬스를 연결했지만 오스틴이 2루수 땅볼로 물러나고 말았다. LG는 7회 1사에서 박해민이 볼넷을 골라냈고 이영빈은 삼진을 당했다. 박해민은 문성주의 타석에서 2루 도루를 시도했고 포수 조형우의 송구 실책이 나와 3루까지 진루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문성주가 우익수 뜯공으로 잡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8회 1사에서 오스틴이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마침내 달아나는 점수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경기 내내 LG 선발투수 손주영에게 막힌 SSG는 손주영이 내려간 이후에도 8회말 김진성에게 막혀 이렇다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9회에는 선두타자 박성환이 바뀐 투수 박명근을 상대로 안타를 날리며 마지막 찬스를 잡았다. 최정은 삼진을 당했지만 대타 신범수는 안타를 때려내며 1사 1, 3루 찬스를 연결했다. 안상현은 삼진을 당했고 대타 정준재는 체크스윙을 한 것이 행운의 1타점 적시타로 이어졌다. 대타 이지영은 유격수 땅볼을 쳐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연장 11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LG와 롯데는 2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시즌 4차전 맞대결 경기에서 7-7 무승부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9회까지 7-7 동점으로 연장전에 들어갔다. 10회초 롯데는 투수 최준용이 올라와 선두타자 문성주를 볼넷을 내보냈으나, 포수 유강남이 2루 도루를 저지하며 실점없이 막아냈다. 10회말 LG는 좌완 이우찬이 마운드에 올라 2사 후 볼넷을 내보냈으나 무실점을 기록했다. 11회초 최준용이 또 올라와 삼자범퇴로 LG의 승리 기회를 지웠다. 연장 11회말 LG는 성동현이 등판했다. 2사 후 나승엽이 볼넷으로 출루했다. 윤동희가 마지막 아웃을 당하며 무승부로 끝났다. 염경엽 LG 감독의 개인 통산 600승은 이뤄졌다. 현재 599승을 기록 중이다. LG 선발 임찬규는 4⅓이닝(86구) 11피안타 2볼넷 1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롯데 선발 나균안은 5이닝(102구) 8피안타 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4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두 투수 모두 노디시전. LG는 이날 문성주(좌익수) 김현수(1루수) 오스틴(지명타자) 문보경(3루수) 박동원(포수) 송찬의(우익수) 구본혁(유격수) 박해민(중견수) 이영빈(2루수)이 선발 출장한다. 염경엽 감독은 "오지환은 어제 사구 맞은 부분이 조금 안 좋아서 휴식이다. 상황이 되면 대타로 한 번 나간다"고 말했다. 롯데는 경기를 앞두고 장두성(중견수) 고승민(2루수) 레이예스(좌익수) 전준우(지명타자) 전민재(유격수) (1루수) 윤동희(우익수) 유강남(포수) 손호영(3루수)의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전날과 동일한 라인업. 그런데 오더 교환 직전에 포수를 바꿨다. 유강남을 빼고 8번 손호영, 9번 정보근으로 라인업을 바꿔 제출했다. 롯데 관계자는 "(유강남 선수는) 부상은 아니다. (감독님)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LG는 1회 선취점을 뽑았다. 1사 후 김현수가 우전 안타, 오스틴이 좌전 안타, 문보경이 볼넷을 골라 만루 찬스를 잡았다. 박동원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송찬의가 때린 타구는 빗맞아 3루 선상으로 굴렀다. 공을 잡은 3루수가 아무 데도 던지지 못해 1

타점 내야 안타가 됐다. LG는 2회 추가점을 뺏았다. 1사 후 이영빈이 나균안의 129km 포크볼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호. 2사 후에는 김현수가 우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시즌 3호. LG가 3-1로 앞서 나갔다. 롯데는 2회말 선두타자 전준우가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로 출루했다. 전민재의 투수 땅볼 때 2루 주자가 협살에 걸려 태그 아웃,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나승엽의 중전 안타로 1사 1,3루를 만들었다. 윤동희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2사 후 정보근의 좌선상 2루타로 3-2로 추격했다. 롯데는 4회 경기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나승엽이 우전 안타, 윤동희의 좌전 안타, 손호영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정보근이 유격수 땅볼 병살타로 2아웃, 3루주자는 득점을 올려 3-3 동점이 됐다. 2사 3루에서 장두성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 4-3으로 역전시켰다. LG는 5회 선두타자 문보경이 좌선상 2루타로 출루했다. 박동원이 기습 번트를 시도했는데, 투수 땅볼로 아웃되면서 1사 3루가 됐다. 송찬의는 삼진 아웃. 구본혁의 땅볼 타구를 1루수 나승엽이 포구 실책을 하면서 3루주자가 득점, 4-4 동점이 됐다. 롯데는 5회말 선두타자 레이예스가 3루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는데, 전준우가 3루수 땅볼 병살타로 2사 주자 없는 상황이 됐다. 전민재가 우선상 2루타로 출루했고, 나승엽이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윤동희가 중전 적시타를 때려 5-4로 리드를 잡았다. LG는 투수를 이지강으로 교체했다. 2사 1,3루에서 손호영이 삼진으로 물러나 공격이 끝났다. LG는 6회초 선두타자 이영빈이 바뀐 투수 좌완 정현수의 슬라이더(130km)를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한 경기 멀티 홈런. 5-5 동점을 만들었다. LG는 7회 선두타자 문보경이 우전 안타, 박동원이 볼넷을 골라 무사 1,2루가 됐다. 송찬의가 희생번트를 시도했는데, 1루쪽으로 타구를 굴렸다. 1루수가 대시해 잡아서 3루로 던져 아웃시켰다. 1사 1,2루에서 구본혁이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적시타를 때려 6-5로 재역전시켰다. 1루주자는 3루로 내달렸고, 3루 송구 때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했다. 박해민 타석에 오지환이 대타로 나왔다.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7-5로 앞서 나갔다. 롯데는 7회 2사 후에 전민재가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나승엽이 우익수 앞 안타를 때려 1,3루 찬스로 연결했다. LG는 이지강에 이어 필승조 김진성을 마운드에 올렸다. 앞서 3타수 3안타를 때린 윤동희는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김진성은 8회 대타 정훈을 삼진으로 잡고, 대타 유강남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1사 1루에서 장두성을 포크볼 3개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고승민이 2볼-2스트라이크에서 포크볼(128km)을 때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7-7 동점이 됐다. LG는 9회초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했다. 1사 후 송찬의가 중전 안타, 구본혁이 좌전 안타로 1,2루를 만들었다. 오지환이 유격수 앞 느린 땅볼로 아웃되면서 2사 2,3루가 됐다. 대타 함창건이 나와서 풀카운트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LG는 9회말 박명근을 구원투수로 올렸다. 선두타자 전준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대주자 김동혁으로 교체. 전민재가 희생번트를 성공시켜 1사 2루가 됐다. 나승엽은 자동 고의4구로 내보냈다. 윤동희의 잘 맞은 타구는 좌익수에 잡혔다. 김민성은 1루수 땅볼로 아웃됐다.